

7. 區政質問 補充質問에 대한 答辨書

번호:

(토목과)

질문의원 조기태 구의원(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청운,효자동)

【질 문】

- 대학로 걷고싶은거리 명칭 및 두 회사에 용역을 주게된 경위
- 시장 보고회(2003.10.14)시 지적사항

【답 변】

- 대학로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시비:27억원)은 대학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마로니에 측 보도가 확장(1~5m)되어 전체 대학로 문화지구에 걸맞는 보도수준 향상 및 도시미관을 향상코자 시비를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대학로 걷고싶은거리와 관련, 토목과에서는 보도정비 용역(20억 6천만원 - 공사비:20억원, 용역비:6천만원)과 문화진흥과에서는 조각공원설치 용역(6억 4천만원 - 조각품설치:6억원, 학술용역:4천만원)을 구분하여 각기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10월 9일 용역보고회시 『대학로 걷고싶은거리 및 조각공원 조성계획』은 양과(토목과, 문화진흥과) 사업을 함께 보고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 시장 보고회(2003.10.14)시 지적사항은
 - 전체를 동일한 컨셉·장르로 구성 : 간결하고 심플하게 조성
 - 대학로 지역특색을 살려 큰 스케일로 특색화
 - 보도포장이 어지러우면 유지관리가 곤란
 - 조각품 설치는 국내 젊은작가 작품중심으로 설치

번호:

(도시계획과)

질문의원

남재경(부암동)

【질 문】

- 부암동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 내에 위치하는 현진건 집터 등을 문화재로 보존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수용계획을 수립하던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부암동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 내 현진건 집터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로의 보존 여부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변지역을 건축물의 용도, 밀도, 배치 등에 의하여 쾌적한 주거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당해 지역 지구단위계획(안)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열람·공고(2003년 11월 8일~2003년 11월 22일)중에 있으므로 현진건 집터 등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은 역사적 보존건물로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서울시에 우리 구 의견을 제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